

“정원과 자원순환으로 쾌적한 도시 만들 것”

전주시, 올해 5대 역점시책 제시
오는 6월 제2회 정원박람회 개최

북정권 기자

전주시가 정원문화센터와 정원산업 지원단지 등 도시 속 정원을 늘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형 정원도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새해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활용선별시설을 증설하고,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분부는 20일 신년브리핑을 통해 '정원 속 생활과 쓰레기 줄이기'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한 정원·청소 분야 5대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역점시책은 △기후변화 대응 및 일상에서 만나는 정원도시 구현 △시민들이 만족하는 아름다운 공원녹지 구현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림환경 및 녹지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구축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 등이다.

먼저 시는 시민들이 도심 곳곳에서 정원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천만그루 정원도시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올해 도시바람길 숲과 혁신도시 미세먼지 저감숲, 기지재 생태공원 조성을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약 30ha 규모의 숲과 정원이 새롭게 조성되며 이와 함께 전주 대표 정원이 될 '정원의 숲'과 지방정원도 오는 3월과 6월에 각각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중산공원에 시민들의 정원문화 공간인 정원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초록정원사 양성 및 정원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정원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릴 제2회 정원박람회도 개최한다.

시는 단순히 나무심기가 아닌 정원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도동 항공대 인근 부지를 기반으로 한국 정원산업 지원단지 조성에도 나선다. 또 기존에 조성된 공공·민간정원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중점 노력할 계획이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분부장이 20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원과 자원순환을 통한 쾌적한 전주만들기에 대한 신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북정권 기자

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조성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친화공간 조성 △완산철물 한빛마루 공원 조성 사업 등 시민들의 쾌적한 공원녹지를 늘리고,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산림환경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는 폐기물 처리 정책혁신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노력한다.

우선 시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자원의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4단계 추진방향과 단계별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55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 재활용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폐기물 처리정책

도 추진한다.

또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무단배출 중점 관리, 주민신고 포상제 운영 등으로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대형폐기물 모바일 간편배출 서비스 운영도 시행한다. 이외에도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용량이 급증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과 '환경깨끗이사업' 등을 추진한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분부장은 “2022년은 전주가 정원문화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자원의 선순환체계 구축과 폐기물 처리정책의 새로운 전환으로 쾌적한 도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뉴스위크지 선정 '세계 최고 병원'

2022년 전문 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에 내분비소아과 2개 분야 선정

전북대학교병원이 '2022년 전문 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에 이름을 올렸다.

20일 전북대병원에서 따르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실시한 '2022년 전문 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내분비 분야와 소아과 분야의 세계 최고 병원으로 선정됐다.

전북대병원은 내분비 분야에서는 전 세계 126개 병원 중 49위를, 소아과 분야는 전 세계 150개 병원 중 106위를 차지했다.

이 순위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20개 국의 의사와 보건전문가, 병원관리자 등 의료종사자

4만여 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분야별 순위는 의사, 보건 전문가, 병원 관리자 등 의료 종사자들의 추천점수(70%)와 평가를 위해 구성된 의료 전문가 그룹의 순위 점수(30%)를 기반으로 정해졌다.

유희철 병원장은 “뉴스위크지의 세계 최고 전문병원 선정은 우리 병원의 의료 수준이 세계 유수 병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전문 분야별로 체계적인 연구와 진료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행정수요 급증 송천1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충

에코시티 입주 주민 증가로 행정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전주 송천1동 주민센터의 주차공간이 확대된다.

전주덕진구는 총사업비 19억을 들여 주차장 31면을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센터 앞에 위치했던 기존 4면까지 포함

하면 총 35면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로 조성된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기 2면도 들어섰다.

최현장 덕진구청장은 “주민센터의 민원인 편의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황호진, 학생과 교사·직원 인권 보장 방안 등 제시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인 황호진 전 부교육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 사람 중심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지역은 지난 2013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래 학생인권교육센터 설립 등 학생인권과 감수성이 많이 향상됐다”면서 “하지만 개별 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 관련 사안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적인 것이 아님에도 여전히 대립적인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인권이 인간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하듯 학교 인권은 학생과 교사, 직원 모두에 대한 존



중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교사·직원 인권 보장 △교원 상 처치시스템 운영지원 강화 △학교급별 맞춤형 인권교육 방향 수립·개시 △민주적인 학교 문화 분위기 조성 등을 제시했다. /공현철 기자

유창희 전 도의회 부의장 “전주종합경기장에 시청사 이전해야”

행정과 교통 허브 구축·전주시-롯데 임대협약 전면 재검토 강조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전주종합경기장에 시청사 이전과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설치, 종합경기장을 행정과 교통의 허브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시청 이전을 위해 전주시와 롯데쇼핑간에 이뤄진 종합경기장 임대협약의 전면 재검토를 제기했다.

유 전 부의장은 20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부족한 청사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40억원의 보증금에 연간 9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종합경기장에 2천여원을 투자해 다목적 청사를 신축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유 전 부의장은 “청사 신축을 위해 전주시와 롯데쇼핑간에 이뤄진 50년 이상 장기 임대 계약을 시민의 편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경기장의 소유권은 전주시민들에게 있고 특정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2012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임대협약 재검토를 통해 청사와 대중교통 환승센터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장 부지에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설치, 시민들이 시외버스와 시내 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청사 신축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다목적 청사 신축에 2천여원이 소요된다”며 “대한방직터 개발 등 개발이익환수금에 행안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기금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제시했다.

유 전 부의장은 “전주시와 롯데쇼핑은 종합경기장 내 2만3,000㎡부지를 롯데쇼핑에 임대하고 전시컨벤션과 호텔 등을 지어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했다”면서 “시청사 이전과 교통환승센터 설치의 전주 백년대계를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며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전주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북정권 기자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온종일 돌봄 확대 필요”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유치원연합회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돌봄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전 행정관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산은 온종일 돌봄이 4개소인데 비해 전주는 1개소 운영에 불과하다”면서 “저녁 돌봄의 경우도 전주시의 지원이 적어 이에 대한 확

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국가적 차원의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등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민간유치원과의 균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행정관은 “일하기 좋은 전주, 가족이



행복한 도시의 기본은 영유아 돌봄이고 이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검토해 확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유치원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제3의 방식도 대안일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북정권 기자

조지훈 전 경진원장,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발굴 나서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사회 구성원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20일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다온복지센터, 한국장애인부모회 전주지부, 전주지역자활센터 등 평화복지네트워크 기관

대표자들을 만나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 관계자들은 평화동 일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영구 임대 아파트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시설의 다양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평화동 일대에 장애인과 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어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의 관심과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돼



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은 더욱 편하다는 것이 장애인 관련 정책의 기준이었다. 이 기준을 통해 낙후된 곳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고심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북정권 기자

SOLO EXHIBITION BY KIM S.MEE

Kim, S-Mee 달항아리에 스피다

We are Dreaming

서울 화랑구 인디문로 41-1 인디아트센터 6층 TEL: (02)720-4354 www.jmoo.kr

서양화 김스미 개인전

2022.1.19.(수) - 1.24.(월)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Jeonbuk Museum of Art Seoul Branch